

<3월 문화제;애또래>

1. 목표

애또래는 문화제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첫째, '공동육아'의 개념과 필요성을 알린다.

'공동육아'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공동'육아로 어머니만의 책임으로 간주되었던 육아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인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인식을 실천에 옮기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오늘날의 육아가 과거와 같이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양하게 개입함으로써 부모와 사회가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현상때문에 생겨나게 된 새로운 의미이다. 이 새로운 육아 이념은 아이들이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애또래는 육아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과업이며, 사회와 가정이 소극적인 협동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공동'육아를 행해야 함을 문화제를 통해 미래의 엄마, 아빠들인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둘째, 자원 봉사자가 아닌 '자원 활동가'로서 애또래가 하는 일을 소개하여 희생이나 봉사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자 한다.

2. 대상

대상은 97'신입생 및 전 학우로 한다. 이는 문화제의 기본 목표를 인식의 변화로 정했기 때문이다.

3. 내용

(1) 만화전

<반쪽이의 육아일기>는 제1회 평등부부상을 수상한 최정현, 변재란 부부의 이야기를 남편인 최정현씨가 신문에 연재한 짤막한 만화를 묶어 놓은 것이다. 이 책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는 가부장적 편견을 꼬집으면서 재미있게 풀어 내고 있다.

이 만화전을 통해 좁은 의미의 공동 육아를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고자 한다.

(2) Video 상영

애또래가 활동하는 '새터 놀이방'의 아이들 각각의 하루를 찍어

편집해 놓은 video를 상영하여 '놀이방'이라는 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와 가정의 공동육아가 어떤 바람직한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 애또래 자활의 하루와 활동을 찍은 video도 함께 상영하여 자원 활동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자보

만화전이나 video상영을 통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자보를 함께 활용하여 이해시킨다.

4.여성자치연합 문화제 안에서의 애또래

아직 여성자치연합이 문화제를 통해 표방하는 주제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논의의 방향에 따라 애또래 문화제의 내용도 일부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문제를 issue화 시킨다는 넓은 의미의 기조아래 각 모임의 성격과 목표를 최대한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